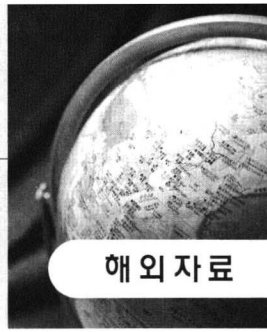


LPG자동차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저공해자동차 의무화로 환경 친화적인 공장 실현

(일) 월간LPG가스 4월호





해외자료

에너지 간 경쟁이 한층 심해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현재 수요를 유지하면서 신규 수요를 늘리는 것이 업계가 직면한 과제이다. “환경 친화적인 LPG차” 26만대 증가를 위한 노력도 그 일환이다. 지역 환경을 배려해서 스스로 LPG차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신문인쇄부수 최고를 자랑하는 (일)일간스포츠 인쇄공장(도쿄)에서는 공장을 출입하는 모든 운송회사에 LPG차를 포함,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의무화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데도 성공했다.

LPG차는 넓은 부지(1만6000평방미터)를 소유한 인쇄공장과 지역주민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환경시대”에 LPG차의 위상을 확실히 나타내 주는 사례로서 도쿄에 위치한 王子인쇄공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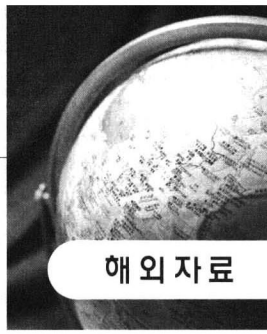
출입차량 반 이상이 LPG차

王子인쇄공장은 첨단기술을 도입한 “21세기 신문생산 거점”으로서 2003년 4월에 준공되었다. 주변에는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고, 벚나무, 철죽 등 조경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공장 옥상에는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마련했고, 연수홀을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주민에 열려있는 공장”이기도 하다. 원래는 기린맥주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공장 앞을 지나는 도로의 이름 “기린거리”로 그 이름이 남아있다.

王子인쇄공장 부지 내에는 일간스포츠, 요미우리신문, 일본제지 3社가 공존하고 있으며, 운송차량은 10톤트럭 등 대형차량에서 신문배송차량용 2톤트럭까지 하루 평균 약 230대(3社 합계)가 출입하고 있다.

LPG차를 중심으로 천연가스차, 가솔린차, 2007년도규제 기준을 충족한 4톤 이상의 디젤차가 출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간스포츠는 출입차량 업자 17개사 약 13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반수 이상 67대가 LPG차이다. 저공해차 이외는 일절 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간스포츠cm의 특징이다.

저공해차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 구와의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교토의 정서 발효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린맥주시대에 대량의



해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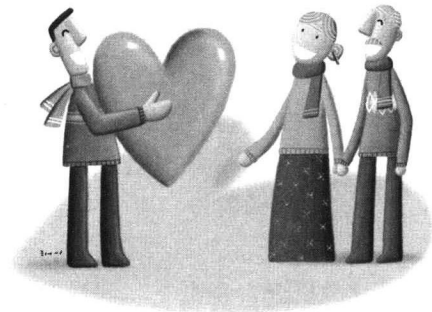
맥주박스를 적재한 대형 운송차의 왕래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에 의한 알레르기가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일간스포츠 인쇄공장 공장장이 말했다. 신문 수송용 차는 한밤중에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업에 있어서 『저공해차를 100%도입하고, 인접 도록인 기린거리에서부터 명치거리로 나갈 때까지는 시속 30km(4톤 이상 20km)주행, 1일 주행차량은 371대 까지』 등을 준수할 것을 공장 부지가 인접한 북구, 황천구 두 개 구와 약속했다. 『지역주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내에서는 무엇보다 철저히 출입 운송사에 주지시키고 있다. 2003년 6월 계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 6월로 만 4년이 되지만, 이 기간 동안 지역주민으로 부터 불평이나 트러블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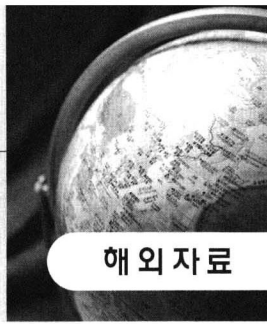
환경 친화적인 LPG차

동경 지역 공장주변에는 마을회, 상점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이벤트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결속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王子인쇄공장 관리과 과장은 『년 2회, 주민들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음, 매연을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지만 운송차량에는 “환경 친화적인 LPG차” 등의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서, 오히려 이것이 PR효과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王子인쇄공장과 관계없는 디젤차, 가솔린차가 속도규제 및 소음규제에 관계없이 매연을 내뿜으며 주행하는 차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LPG차가 사람에게 유익한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한 공장장은 『특히, 하루 중 일 집에 있는 노인들도 좋아한다. 지금은 “환경 친화적인 공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도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다. 현재는 마을회 축제에도 공장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해외자료

또 공장에서는 인쇄공정을 알려주기 위해, 시청각실에서는 비디오로 공장의 특징 및 작업공정을 설명하고, 견학코스로 인쇄에서 배송차에 실려지기까지의 공정을 유리창너머로 볼 수 있게 마련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융합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에 LPG차 도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LPG차, Green경영의 중심

王子인쇄공장에서는 도내는 물론 사이타마현, 토치기현 까지 신문이 배송된다. 매일 , 낮과 저녁에 2회, 1층 발송창구에는 포장된 신문을 기다리는 배송차량이 속속 도착한다. 창구는 15계열, 30대의 배송차량이 주차가능하고, 이곳에서 지정 지역에 도착하는 신문을 기다린다. 배송센터 센터장은 『디젤차는 창구의 벽 등이 그을음으로 곧바로 검게 만든다. 이곳에서는 LPG차를 중심으로 하는 저공해차만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벽, 공기도 오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상에서도 LPG차의 공헌도를 높게 평가했다. 정차 중에는 물론 엔진을 정지시키지만, 창구 내 천정 및 벽에는 방음재로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30대의 차량이 신문을 적재하고 일제히 출발해도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운송회사 측에서도 환경대응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동사에서는 연간 2회, 정례적으로 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에너지절약 추진, 급발진 금지, 공회전금지 등의 얘기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 LPG차를 시작으로 저공해차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한다. 운송업자의 약 70%는 『Green 경영』등록인정을 이미 취득하고 있으며, 타 회사도 취득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 대응 = 저공해차로의 전환』은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LPG차가 서있다.

저공해차·LPG차 채용을 지역사회와의 대화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王子인쇄공장,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환경대응에의 노력 등, LPG업계로서도 신중하게 참고해야 할 사례이다.